

2020 국별 진출전략

에티오피아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대외정세] 대외 경험강화 / 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확대	5
나. [국내정세] 2020 총선 통한 사회 통합 도전대에	6
다. [경제전망] 세수 확충 / 대외 경제 통합 가속화	6
라. [산업개발] 산업공단 완공 / 민간참여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8
마. [소비문화] 중산층 중심의 생활소비재 수요 증가	9
바. [시장성향] 고품질 중저가 제품 관심 증대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1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1
가. 정치 환경	11
나. 경제 환경	12
다. 산업 환경	14
라. 정책·규제 환경	15
2. 시장 분석	18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8
나. 교역	19
다. 외국인 투자 동향	20
라. 공적개발 지원현황	21
마. 프로젝트 동향	24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6
가. 교역	26
나. 투자	2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III. 진출전략	3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1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32
3.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34
4.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6
5. 진출 시 유의사항	38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1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2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3
부 록	
對에티오피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4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0년 에티오피아 시장 전망

- 최근 2년간 두 차례의 국가 비상사태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과 경기침체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외환 부족, 지방 종족 간 갈등, 과도한 물가 상승, 후진적 행정 관행 등 고질적 병폐 지속
- 한편 △2018년 4월 취임한 Abiy Ahmed 총리의 개혁·개방 드라이브, 속도감 있는 정부·국영기업 구조조정 및 서방의 호평(경제지원 확대), △석유 및 부존자원 개발 추진(수출확대 및 다변화) △적대국 에리트레아와의 종전 및 경협강화(대외정세 안정 및 개발영역 확장) 등 호조 요인에 힘입어 2019년에는 7.4%, 2020년에는 7.2% 내외의 성장 예상

🌐(호조요인) Abiy 총리의 리더십에 기초한 대·내외 안정세 유지 및 경제성장에 총력

- 총리의 발빠른 국·내외 행보로 민심잡기 및 주요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개선
 - 2018년 7월 UAE의 30억 달러 투자 약속 및 중국·인도·터키의 투자진출도 확대 중
- 에리트레아와의 종전 선언, 경협확대 및 항만 활용을 통한 고질적인 물류 환경 개선 노력
 - 지부티 항(Djibouti)의 의존도는 낮추고 에리트레아 Massawa, Assab항 활용 확대 예상
 - * 아비 총리는 에리트레아와 화해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2019년 10월)
- 2개 지역 이상의 신규 산업공단 가동으로 제조업 육성 강화 및 수출품목 다변화 예상

🌐(부진요인) 외환부족, 과다채무, 비효율적 행정처리 등 고질적인 문제 만연

- L/C 개설(7~8개월) 및 결제(2~3개월)에 장기간 소요, 원활한 교역활동 저해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및 세무·관세·노무관련 애로사항 여전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 ¹	백만 명	94.9	97.4	99.8	102.4	103.0	105.0	>109.0
명목 GDP ²	십억 달러	47.6	55.6	64.5	73.0	80.6	87.0	>91.0
1인당 명목GDP ²	달러	1,371	1,500	1,632	1,734	1,899	1,950	2,516
실질성장률 ³	%	10.5	10.3	10.4	7.6	10.3	8.5	8.2
실업률 ⁴	%	4.9	4.9	4.9	5.1	5.2	5.5	4.5

소비자물가상승률 ⁵	%	8.1	7.4	10.1	7.3	12.5	12.0	10.9
총수출 ⁶	백만 달러	2,591	2,978	2,697	2,616	2,863	2,666	>1,300
(對韓 수출) ⁷	"	55.0	55.0	53.0	58.0	65.0	46.0	>71.3
총수입 ⁶	"	10,955	14,718	16,283	16,831	15,019	10,030	>4,000
(對韓 수입) ⁷	"	154.7	113.4	97.0	105.0	110.0	109.0	>41.5
무역수지 ⁶	백만 달러	-8,364	-11,740	-13,586	-14,215	-12,156	-7,364	>-2,700
환율(연평균) ⁸	ETB/US\$	18.6	19.6	20.6	21.7	27.0	27.6	>29.15
외국인직접투자 ⁹	억 달러	3.6	1.9	2.6	1.9	5.4	0.8	>0.04

¹ World Bank/2019년 9월³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2019년 7월⁵ CSA(Central Statistical Agency of Ethiopia)/2019년 4월⁷ KITA/2019년 8월⁹ EIC(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2019년 9월² IMF/2019년 8월⁴ MOLSA(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2019년 1월⁶ ECC(Ethiopia Customs Commission)/2019년 6월⁸ Ethiopia Commercial Bank/2019년 9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요약 : Abiy 총리는 취임 후 대내·외 광폭 행보를 통해 정국안정을 도모하고 2018년 말까지 공공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 추진 중이고, 특히 GTP II(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2020년)를 근간으로 최근까지 부진했던 수출, 외투기업 유치, 제조업 육성, PPP 개발확대, 공기업 구조조정, 광범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성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한편, 끊이지 않는 지방·지역·인종 간 갈등,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상승 및 빈부격차 심화 등 불안 요인도 여전

가. [대외정세] 대외 경협강화/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확대

에리트레아(1993년 분리 독립)와 20년간 지속된 외교적·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 유지 및 단일 경제권 형성에 박차

- Abiy 총리는 2018년 9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년 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온 에리트레아와 무력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2019년 10월)
 - HoA(아프리카의 뿔) 지역 통합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최근 케냐,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국가 정상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양국 간 다방면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으로서 지부티에 의존하는 고비용 교역구조를 탈피하고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와 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동시 기대
 - 최근 2019년 6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리트레아 Assab 항구 및 Massawa항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세계은행과 이탈리아의 지원) 개시
 - 교류확대 기반 조성(2018~2019년) → 민관협력 확대(~2020년) → 단일 경제권 구축(2020년~) 예상



Abiy 총리의 폭넓은 대외 행보를 통해 제조업 육성 및 SOC 확충을 기반으로 농업·관광업·ICT·광업 분야에 국제사회의 대(對)에티오피아 지원을 확대 유치

- (美) 아프리카 내 강력한 우방국으로 여기며 투자기업 및 재미동포 자금유치 확대
- (中) 제1위의 교역 파트너로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및 양허성 차관 제공, PPP 형태의 투자 확대 요청
- (日) 도로 개선 프로젝트 및 인적 자원, 산업 분야 발전 지원 요청

- (EU) 영국, 독일 등 무상차관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건 및 교육 개선 프로젝트 활성화
-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우주공학 및 과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
- (中東) UAE 추가 지원(\$100mil) 약속, 산업단지 및 관광 산업 개발 협력 확대
- (MDB) WB, AfDB 등 유·무상 차관 증액 및 PPP 프로젝트 활성화

나. [국내정세] 2020 총선 통한 사회 통합 도전대에

 5년 만에 실시될 2020년 5월 총선을 통해 현 집권 여당 EPRDP가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이목 집중 및 투명성 확보 노력이 관건

- 참고로 2018년 8월 하원은 긴급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정부 관료의 선거 출마 조건 및 △정당 창당 조건)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인구 총조사도 3번째 미뤄지고 있음

 한편 △ 8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태생적인 이질성, △ 종족 극단주의 △높은 실업률·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 근간을 뒤흔들 통제 불가한 위협요인도 다수

- 인민해방전선(EPRDP-현 집권여당)의 테러리스트에서 해제된 OLF(오로미아해방전선), Ginbot 7 등의 망명 지도자들 귀환 후 무장투쟁 지속과 분리 독립에 대한 입장을 견지
 - 특히 오로미아(Oromia)주의 영토 및 종족 간 분쟁 초래로 금년 중 1백만 이상의 국내 실향 증가
- SNNPR주 시다마 지역 독립 여부 결정 위한 국민투표 2019년 11월 실시 예정
- 2019년 6월 암하라주 쿠데타 시도 관련 암하라 종족 정당(ADP)와 티그라이 종족 정당(TPLF)이 쿠데타 배후세력으로 상호 비난
- 또한, 아디스아바바 등의 대도시와 지방 지역의 간헐적 시위가 실업자 증가 및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불만과 뒤섞여 반정부 성향의 유혈 폭력 사태로 변질 가능

* 최근 反中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지역에서 시위 발생 시 외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기물파손 및 인적 상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보안책 마련 등 필요

다. [경제전망] 세수 확충/대외 경제 통합 가속화

 공공 인프라 건설 비용 조달 및 세수 부족에 따라 대외·내 채무 급증, 세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세수 확충 및 민간 투자 자본 확대에 집중

- 정부 주도의 에너지, 산업단지, 운송 인프라 개발(GDP의 8.8%) 및 서비스(GDP의 12.2%) 산업 성장에 따라 중앙정부 및 국영기업(전력청, 철도청 등)이 대내 채무의 각각 50% 차지
 - 공공 부채 안정화를 위해 △세수 확충을 위한 법 개정 및 행정 효율성 강화, △국영기업 및 서비스 산업(통신, 물류)에 대한 외국기업 지분 취득 및 직접투자 허용 추진
- 이밖에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며 WB 지급보증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구상 중
 - 전력의 경우 150~800MW 규모의 11개 수력·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평균 USD 3.9억)에 USD 43억, 도로는 3개 건설사업(평균 USD 3.6억)에 USD 11억으로 추정
 - PPP 사업의 최대 이슈인 발전차액(혹은 사용료 회수)은 WB가 지급보증 검토

 **열악한 제조 여건,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무역적자 심화로 △외환부족(L/C개설), △대외채무 지속, △미진한 투자환경 개선 속도는 여전히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

- 만성적 외환 부족에 따라 L/C 개설 신청 후 통상 6~7개월 소요(USD 10만 내외 기준)
 - 개설 시점을 기습하기도 불가하며 USD 1백만 이상의 L/C는 사실상 승인받기 어려움
 - 정부 지침의 외환배정 우선순위 수시 변동, 수입업자의 L/C 개설 긴급 제한 조치 등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이 산재
- 2018년 12월 IMF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 결과 고위험(High Risk)군으로 등급 하향조정
 - 수출 정체, 비양허성 차입 만기도래 ... 수출액 대비 현 외채 가치 및 원리금 비율 상승
 - * 한편 수출액을 감안한 외채 중기전망은 2022년부터 한계치 이내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9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사는 에티오피아 정부 전망을 기존의 '안정(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변경
 -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선은 냉정
 -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및 관리능력의 미비, 주요 수출품인 커피 등의 농산물 가격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중에도 대외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2019년 5월 30일 발효로 대외 경제통합 가속화 기대**

- AfCFTA는 GDP 2.5조 달러, 12억 인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역내 교역 비중은 2022년까지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AU 비공식 추산)
 - 2019년 10월 시점 54개국 이 서명, 27개국 이 비준 완료
- 2020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관세 및 관세 축소 조치 시행 예정이나,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등 기존 경제공동체와의 관계설정, 국가별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조항 주장 등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난관 예상

라. [산업개발] 국영 산업공단 완공/민간 참여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2019년 6월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전역에 총 11개 국영 산업공단(IP-Industrial Park) 중 6개 공단이 가동 중이며, 나머지 5개 공단은 늦어도 2020년까지 하반기까지 완공 예상

-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Bole-Lemi I(Addis Ababa시), Hawassa(SNNPR주), Mekelle(Tigray 주), Kombolcha(Amhara주), Adama(Oromia주), Debre Birhan(Oromia주) 등 6개 공단
 - 공단에 입주한 외투기업 대다수가 한국, 중국, 터키, 인도, 이탈리아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봉제·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 중
- 나머지 Bole-Lemi II, Kilinto(Addis Ababa시), Bahir Dar(Amhara주), Jimma(Oromia주), Dire Dawa(Dire Dawa시) 공단 중 최소 2개 공단은 2020년 초 가동 예정
 - 이밖에 2019년부터 공사를 추진 중인 Bishoftu, Awash, Andido, Asayta 공단과 항공물류 센터(Airlines Logistics) 등이 있으며, Baeker, Bure, Bulbula 지역에 농가공단지 설립 예정

 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인해 우리기업 투자진출 수요도 지속 증가

- 에티오피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15개사 내외로 의류생산은 Bole-Lemi I에 입주한 신티에스(ShinTS)와 영원무역, 가죽가방은 Kombolcha에 입주한 풍국산업이 대표적
 - AGOA(美), EBA(EU)의 무관세 혜택을 활용한 미래의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필요
- 현재 Bole-Lemi II 공단에 산업 ODA의 일환으로 KIAT가 섬유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중
- 한편 내륙운송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서 에티오피아 물류공사(ESLSE) 기준으로 40ft 컨테이너의 지부티-아디스아바바 간 트럭운송(Trucking) 비용은 USD 2,400에 육박하여 2019년부터 비교적 저렴한 철도 이용이 급증

 유상차관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기업의 공동투자 에너지 프로젝트 통한 인프라 확충 기대

- 현재 수출 부진 및 부족한 외환 사정을 고려할 때, 외채에 의존하는 인프라개발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워, 민간 자본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적극 확대
 - 2019년도 초 수력 및 태양광(14개, 48억 불), 도로건설(3개, 11억 불)등 리스트 발표
 - 태양광 프로젝트 일부는 발전차액에 대한 WB와 외화 지급 보증 논의 중

마. [소비문화] 패션, 뷰티, 주방용품 등 중산층 중심의 생활소비재 수요 증가

2016년부터 인구수 1억 명을 돌파,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2위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

- 1인당 국민소득은 USD 1천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중산층의 비율이 연간 8% 이상 증가하고 평균 연령 30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층이 증가하면서 다품목 소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에티오피아는 소비재 제조 산업이 부재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에티오피아 소비재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63	6.3%	585	4.0%	612	4.6%

* 자료 : BMI Research

- 또한, 외국과의 사회, 문화, 경제교류 확대로 인해 연령층과 관계없이 첨단 가전 및 개인용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 지향적 문화도 빠르게 확산
 - 中, UAE로부터 밀수되는 제품 중 스마트폰, TV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젊은 소비자층은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확산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

바. [시장성향] 중국산 저가 제품에서 고품질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공격적인 유상차관 지원확대와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연평균 3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중국산 저가품에 대한 피로도 누적으로 2019년 6월 누계 기준으로는 USD 9.2억을 기록하며 중국산 제품 비중은 23%로 감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시장공세에 대한 반감과 △저가의 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술력에 기초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美, EU 등 선진국이 여전히 강세

- 중국인 공사인력의 대규모 유입(비공식 10만)과 단기 상업차관 지원 확대에 따른 에티오피아의 대외채무 위험 증가 등, 중국에 대한 막연한 반발 심리를 더욱 악화
 - 또한, 과거 대비 품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중저가 이상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 실제로 가격과 품질에서 중국과 美·EU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산 제품은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요약 : 동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에티오피아는 Next 동남아 진출대상국으로서 고려 가능. 다만 △상시적인 지방 분쟁 △외환 부족에 따른 수입 애로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의 불안정한 공급 △불합리한 행정 관행 △각종 예측불허한 돌발변수가 산재하고 있으나 틈새시장의 발굴 및 현지 실정에 맞는 진출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회의 시장으로 선점 노력 필요

가. 정치 환경

 국가 비상사태 이후 2018년 4월 취임한 Abiy Ahmed 총리의 신속한 대내·외 행보를 통해 정국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난 20년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 있던 에리트레아와 종전 선언을 통해 HoA(아프리카의 뿔) 지역 통합 및 갈등 해소
 - 현재 에리트레아 2개 항구(Massawa, Assab) 접근도로 개보수 및 항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시

〈Abiy Ahmed 총리 인적사항〉



- * 1976년, Oromia주 출생
- * MBA, 박사학위 보유
- * 주요경력
 - 육군 중령 예편, 하원의원
 - 과학기술부 장관
 - Oromia당(OPDO) 총재

- 또한,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인해 Ethio Telecom(통신), Ethiopian Airline(항공), 전기 서비스, 철도, 설탕 등 비효율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건설한 국영기업도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할 예정

 한편, 2019년 6월에 발생한 쿠데타 시도, 지방 지역 간 분쟁,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심화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의 부진에서 탈출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악재

-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던 과격 폭력 시위가 아디스아바바 등 대도시로 확산되는 추세
 - 민생경제 악화와 함께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의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의 장으로 변질
- 외투기업 화훼농장 방화(2016년, 7백만 유로) 등 실제 피해 사례는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결정적 요인
 - 최근 反中정서 확산 및 외투기업·외국인 등 소위 '가진 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만연

 **한편 지방 지역 간 분쟁,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심화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의 부진에서 탈출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악재로 작용 가능**

-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던 과격 폭력 시위가 아디스아바바 등 대도시로 확산되는 추세
 - 민생경제 악화와 함께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의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의 장으로 변질

나. 경제 환경

 **아프리카 제2위 인구대국(>1억명)으로서 대규모 잠재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GTP II, 2016~2020년)을 추진 중**

- (GDP) 1인당 국민소득은 USD 1천 이하이나 총생산은 연간 7~10%의 꾸준한 성장 기록
 - 경제성장률 전망(IMF) : 10.1%(2017년) → 7.7%(2018년) → 7.4%(2019년) → 7.2%(2020년)
- (무역투자)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육성과 수입대체를 추진 중이나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투자가는 관망세 유지
 - 수출(USD) : 27억(2015년) → 26억(2016년) → 29억(2017년) → 27억(2018년) → 14억(2019년 6월)
 - 수입(USD) : 163억(2015년) → 168억(2016년) → 150억(2017년) → 100억(2018년) → 40억(2019년 6월)
 - 투자유치(USD) : 3.0억(2015년) → 2.5억(2016년) → 5.6억(2017년) → 0.8억(2018년) → 0.04억(2019.9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 인프라 건설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내·외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대내외 부채는 USD 525.7억에 달해 GDP의 60%를 상회하여 국가부채 한계점을 상회**

- GTP II(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 경제성장 11% 달성을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 비용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구입, 공장건설을 위한 국영기업 상업차관도 크게 증가
- 대외부채 중 다자간 차입(WB·AfDB 등 국제기구) 39%, 양자 간 차입(국가별 유상차관) 34%, 상업차관(주로 中 수은·공급자 신용) 27%이며, 의회에서 차관승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 중
 - * 낮은 외환 보유고(1.8개월 수입분)와 차관 만기상환 부담 등을 감안 시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

 **한편, 만성적인 무역적자,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정부의 외환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 필요한 외환배정은 갈수록 인색해지는 상황**

- USD 5천 이상의 수입 건에 대해서는 LC 거래를 의무화하였으나, 최근 LC 개설 시 9~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LC개설 이자율도 인보이스 대비 6~10% 내외로 상승
 - 또한, L/C 개설 이자율 외에 총금액의 10~15% 가까운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
 - 의약품, 연료 등 정부 훈령품목을 우선시, 연관성이 낮을수록 LC 개설도 지연
 - * 활황이던 건설업도 건자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흉물스럽게 짓다 만 건물이 시내 곳곳에 산재하며, 대형 빌딩의 경우 완공에 10년이 소요되기도 함
- 특히,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중앙은행의 ‘외화 할당의 투명성 및 외화 관리지침 FXD/62/2019호’에 따르면 바이어는 2건을 초과하는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를 은행에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제됨
 - 해당 훈령은 제6조 제1항에서 수입을 위한 외화 할당에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 분류제와 대금 결제에서는 선착순 원칙을 도입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 서열은 없음
 - 동훈령 시행 이후 은행들은 즉시 회사마다 견적 송장을 2개씩만 남기고, 그 외 외화 신청을 등록 취소하고 있으며, 동지침은 대규모 수입 바이어에게는 타격이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할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에이전트로부터의 주문량이나 주문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출, 투자 불문 시장 진출 시 외화 할당 가능성 타진 필수

외화 할당 우선 순위표

A. 1순위
I. 연료
II. 제약 : 의약품 및 실험실 시약
B. 2순위
I. 농업 투입재 : 비료, 씨앗, 살충제 및 화학 물질
II. 제조업 투입재 : 원재료 및 화학 제품
III. 이익과 배당금 송금
IV. 외항사의 초과 판매분 이전
C. 3순위
I. 엔진 오일, 윤활유, LPG 가스
II. 농업용 투입재 및 기계류(관개 펌프, 동물사료, 기계 및 장비, 트랙터, 수확기계와 예비부품, 잡종 동물
III. 의약 제품(실험실 장비, 의료 장비 및 기구)
IV. 기계류, 장비, 부품 및 부대용품 조달을 위한 제조산업의 요청
V. 유아용 영양식품
VI. 건설회사 스스로 사용을 위하여 US\$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기계부품
VII. 교육 자료(연습장, 볼펜, 연필, 인쇄용지)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 판매 및 청산

- 한편 LC 결제 시에도 큰 금액은 만기 시점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 에티오피아 개설 은행의 LC 매입은행(추심의뢰은행)에 송금지연으로 선 결제한 국내기업이 페널티를 부담
 - USD 백만 이상의 LC는 개설 승인 자체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대형 외화 할당 수요 위주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갈수록 심하고 오히려 민간은행이 외화 할당에 있어 빠르거나 유리하다는 평

* 에티오피아 수출 시에는 넉넉한 기한을 설정하고 바이어가 LC 개설은행에 하루라도 빨리 외화 배정 신청을 하고 (순번제), 조속한 개설을 독촉하도록 유도

다. 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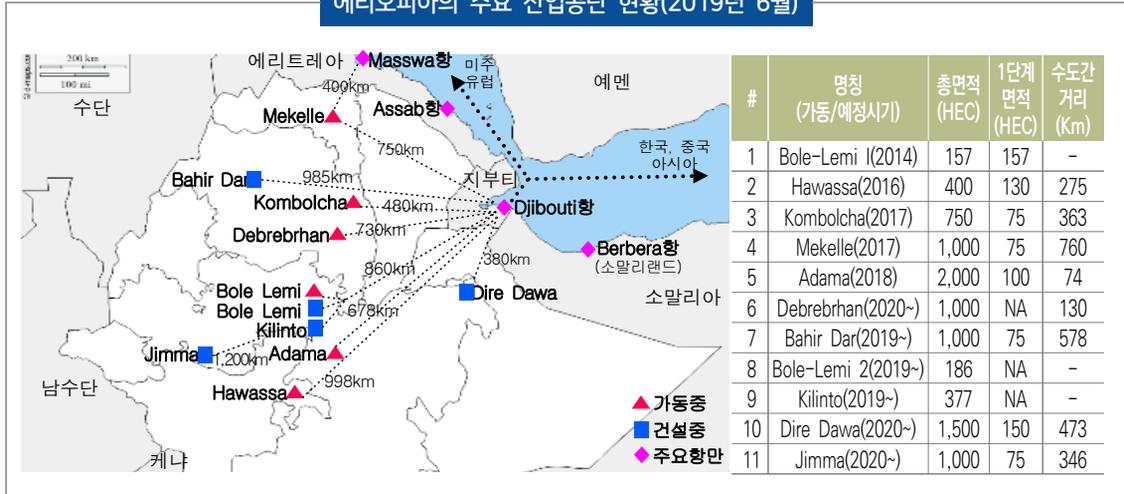
 제2차 경제개발계획(GTP II, 2016~2020년)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GDP 비중에서는 서비스(42%) > 농축산(36%) > 건설제조(22%) 순으로 갈 길이 먼 상황

- 서비스업 비중은 최근 3년간 40%를 상회하여 버블성장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주력 수출 품목도 커피(33%), 참깨(15%), 채소류(8%) 등 주로 저부가가치 농산품에 치중
-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으로서 관련 제품인 화학, 중장비, 전자재 수요가 높으며 한국의 대(對)에티오피아 수출에서 동 제품들의 비중은 70% 이상
 - 정부가 제시한 산업화 촉진, 성장동력 확보와 달리 단기간 내 '돈이 되는' 업종에 과열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 저렴한 인건비와 AGOA(美), EBA(유럽) 무관세 혜택을 앞세워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

-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Bole-Lemi I(Addis Ababa시), Hawassa(SNNPR주), Mekelle(Tigray주), Kombolcha(Amhara주), Adama(Oromia주), Debre Birhan(Oromia주) 등 6개 공단
 - 에티오피아 및 韓, 中, 터키, 인도에서 직접·합작투자를 통해 주로 섬유제품을 생산
 - * 공단 내 설치된 공장건물(Shade)에 설비를 반입·설치하여 운영 (s/m당 월 USD 2.7~3.0)
- Bole-Lemi II, Kilinto(Addis Ababa시), Bahir Dar(Amhara주), Jimma(Oromia주), Dire Dawa(Dire Dawa시)은 2019~2020년 가동 예상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공단 현황(2019년 6월)



자료 :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IPDC :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 of Ethiopia

- 에티오피아 교역물동량의 85% 이상을 소화하는 지부티(Djibouti)항에서 아디스아바바 간 트럭운송비(40ft Con.)는 에티오피아물류공사(ESLSE) 기준 USD 2,400 내외, 물류비 부담이 큰편
- 최근 에리트레아와 평화협정 체결, Mekelle 공단의 경우 Massawa항 이용에 큰 기대

📌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 송전망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들이 적극 참여 중

- EDCF(~2019년 USD 5억 예상)는 인프라 건설 및 공공시스템 개발 등으로 지원영역 확대 중
- WB, AfDB 프로젝트는 사공 사업에서 중국과 가격경쟁 불가, 설계·감리분야에 관심 고조

라. 정책·규제 환경

📌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2016~2020)에 따라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위한 4대 목표 및 9대 전략을 설정

* 중저소득국 :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USD 1,005~3,955 내외의 국가(WB)

최종목표	4대 목표	9대 추진전략
2025년 중저소득국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 경제성장률 11% 유지 ② 농축산업, 제조 분야 기술, 품질 향상 ③ 전 국민의 GTPII 동참노력 강화 ④ 민주적 개발도상국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의 성장, 개발추세 유지 ②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기반마련 ③ 중소기업, 제조업 육성 강화 ④ 국내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⑤ 도시개발 가속화 ⑥ 인적 자원 양성 교육, 보건 향상 ⑦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동참 유도 ⑧ 여성, 청소년 사회적 권리 강화 ⑨ 지속가능 개발 추구, 환경보호 강화

- 특히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세관 및 물류 시스템 개선, △투자자금 대출(50~70%), △산업 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
- 한편 △과다한 물류비, △외환부족, △능장행정, △고관세 등은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
 - 경제성장, 수출, 투자유치 등의 최근 실적은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 21개국과 투자보장 협정 발효 중이고, 미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한국 등 17개국과는 이중과제 방지협정을 체결

주요 협정 체결국 현황(2019년 10월)

- ※ 투자보장협정(발효국) : 알제리, 오스트리아, 중국,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수단,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터키, 예멘
- ※ 이중과세방지협약 : 미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러시아, 튀니지, 예멘, 이스라엘, 남아공, 수단,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한국(2017년 10월 31일부)

- 자유무역협정으로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에도 가입 중이며 2019년 5월 30일 발효된 아프리카범자유무역지대(AfCFTA) 참여국으로 역내교역 확대 전망
 - GDP 2.5조 달러, 12억 인구의 거대시장 출현이 기대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난관 예상
 - * AfCFTA는 AU(African Union)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현재 54개국이 서명하고 27개국이 비준

 한편, 수출, 투자진출, 프로젝트 수행 등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돌발변수와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 능장 행정처리 등은 실질적인 규제이자 가장 큰 애로사항

- (시장진출) 심각한 수준의 외환 부족으로 인해 L/C 개설 지연이 만연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대심리를 약용한 결제 전 제품 선적 요구, 무역사기도 증가 추세
 - 통상 USD 10만 이하의 LC는 6~7개월, USD 1백만 이상은 무려 1년 이상도 소요
 - 에티오피아 보세구역에 수출품 도착 후 2개월 내에 미 통관 시 관세청에서 압수

- (투자진출) 중앙·지방정부간 힘겨루기로 인해 투자허가 및 인센티브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투자 이행조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
 - 사례1) 중소기업 당나귀 도축장 : 도축장 가동 후 지방정부에서 민원을 이유로 폐쇄 명령
 - 사례2) A사 제조공장 : 당초 약속한 접근도로, 수도, 전기공급 지연으로 손실 발생
-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계약사항과 관계없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최근 발주처와의 법리다툼 시 에티오피아 법원에서 심리토록 명시하여 다소 불리한 상황
 - 비용 인정 범위 등 계약사항 전반은 세법에 준하고 각종 기록 및 증빙은 철저히 관리

2 시장 분석

※ 요약 : 동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양국 간 교류 역사와 함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 ODA 공여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관심도 증대되는 등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협력대상국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억 명 이상의 인구, △정부 주도의 고속성장, △풍부한 미개발 자원,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등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 (내수시장) 1인당 GDP는 USD 1천 이하이나 실질 구매력 향상과 소비지향 문화 확산 중
- (경제성장) 중장기 정책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산업화 촉진으로 10%대 건실한 성장 실현
- (부존자원) 풍부한 농토, 금 등 주요광종 수출, 최근 유전 발견 등 미개발 자원 관심 증대
- (평화유지) 에리트레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인접국과의 평화 모드로 동아프리카 정세안정 기여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투자진출, 개발협력 등 아프리카의 다목적 전략국에 더하여 향후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진출의 교두보로써 활용 확대 필요**

- (수출)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범람에 질린 소비자들이 조금씩 품질 중시로 전환
 - 한국산에 대한 **逆샌드위치** 인식 확산(中 대비 가격↑, 美·EU 대비 가격↓ 품질 비슷)
 -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에서 **의료(정부조달), 공산품(소비재)** 등으로 수출 다변화 가능
- (수입) 커피, 참깨 등 주력 품목 외에도 **가죽, 축산물부산물, 가공식품** 등도 고려 가능
 - 수출 잠재력 대비 **저평가된** 제품 다수, **무상차관**으로 농업 역량 강화 추진에 박차
 - * 한국은 농진청(KOPIA)이 종자 개량을 지원 중, 서방은 계획경작 및 유통·저장창고 지원 등 검토
- (협력) **형제의 나라(한국전 파병), 초고속 성장의 롤 모델인 한국**에 다양한 경험 전수 기대
 - EDCF는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공공시스템** 구축으로 영역 확대 중
 - 무상차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훈련, 낙후지역** 대상 지원 강화
 - **환경, 에너지, KSP**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자체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
- (투자)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AGOA(美), EBA(EU) 무관세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전진기지로서 관심 고조

- 낮은 생산성, 높은 물류비의 단점에도 동남아 대비 1/3 수준의 인건비는 매력적인 요인
- 중국의 경우 중국기업 전용 동방산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입주가 시작된 국영 공단에는 중국, 인도, 터키 봉제 업체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
- 이 밖에 의약품의 경우 수출과 더불어 에티오피아 정부조달 시장을 겨냥하여 진출

나. 교역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수출은 USD 26~28억 선에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2016년 USD 168억을 기록한 이후 외화 규제로 인하여 감소 추세

- 미흡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수입제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외환 수급 변동성에 가장 취약하여 전체 수입액은 2018년 이후 지속 감소함
- 한편, 항공기, 트럭, 중장비 등 국영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상업차관 도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ODA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관련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수출입 현황

(단위 : USD 억, 증감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수 출	30(15%)	27(-9%)	26(-3%)	28(9%)	26(-7%)	13(-5%)
수 입	147(34%)	163(11%)	168 (3%)	150(-11%)	103(-31%)	40(-40%)
수 지	-117	-136	-142	-132	-77	-27

자료 : 에티오피아 관세청(ECC)

- 급증하는 수입과 달리 최근 10년간의 수출은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가운데 해당 연도의 작황실적에 따라 수출실적이 좌우되는 취약한 상황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섬유·봉제업 육성을 통한 주력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필요(WB, IMF 등)

 주 교역대상국은 중국, 미국, 중동국가들이며 대체로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유지

- 중국과 오랜 기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중국이 수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는 인근국에서, 고가의 기계류는 미국, 중국에서 주로 수입
- 앰블런스 등 특수차량, 의약품, 곡물(WFP 원조), 비료, 발전기, 철강 등도 10대 수입 품목

2019년 6월 에티오피아의 상위 5대 교역대상국 2019년 6월 에티오피아의 상위 5대 교역품목

(단위 : USD 백만, 비중)

(단위 : USD 백만, 비중)

순위	수출국	금액	순위	수입국	금액	순위	수출품	금액	순위	수입품	금액
1	미국	170(13%)	1	중국	919(22%)	1	커피	417(32%)	1	석유	733(18%)
2	소말리아	123(9%)	2	쿠웨이트	641(16%)	2	참깨	242(19%)	2	화학비료	208(5%)
3	네덜란드	103(7%)	3	인도	263(6%)	3	냉동채소	142(11%)	3	의약품	163(4%)
4	사우디	92(7%)	4	모로코	213(5%)	4	건채소	115(9%)	4	비료	154(3%)
5	아랍	81(6%)	5	미국	199(4%)	5	화훼류	105(8%)	5	밀	136(3%)
17	한국	25(1%)	24	한국	29(1%)						

자료 : 에티오피아 관세청(ECC)

- 한국은 에티오피아 수출 수입 시장 모두 1% 수준이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로 인해 원활한 L/C 개설 시 수출확대 기대

- 특히 바이어의 L/C 개설능력이 수출여부를 좌우, 적극적·능동적 바이어 발굴이 중요

 무기류 등 일부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명문화된 장벽은 없으나 △고관세, △능장 통관처리, △내륙운송 지연, △자의적인 HS Code 적용 등이 실질적인 장벽

- 관세(0~35%), 부가세(VAT), 물품세(Surtax), 인지세(Withholding Tax) 등 세금의 종류도 다양

다. 외국인 투자 동향

 1992~2019년 9월까지 총 USD 46.8억 유치, 투자 프로젝트 수로는 3,131건 기록

- 2016년 국가 비상사태(2016년 10월~2017년 8월) 선포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인 USD 5.6억을 유치하였으나, 그 이후 지방 지역 간 갈등, 정정 불안 등이 심화되며 2018년에는 2003년 이래 최악의 실적인 USD 76백만을 기록하고 2019년 들어서도 극감하여 9월 누계로 USD 4백만에 불과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투자유치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누계(1992~2019년 9월)
금액(USD백만, 증감률)	296(35%)	251(-15%)	560(122%)	76(-87%)	4(-%)	4,684
프로젝트 건수	183(24%)	157(-14%)	125(-20%)	89(-29%)	13(-%)	3,131

자료 : 에티오피아 투자청(EIC)

- 한편 아비 총리 취임(2018년 4월) 이후 정국안정이 기대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총리 직속으로 투자 환경 및 고용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2019년 7월)를 만드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투자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으로 투자 프로젝트 건수 역시 2015년의

183건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중앙·지방간 갈등, 종족간 갈등 등 위험요인은 늘 상존하고 있으며,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 수입 애로를 겪던 외투 기업들의 철수사례 증가로 투자진출 관망세 확산

국가별 투자실적에서는 중국(합작포함)과 사우디, 터키의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분야별로는 제조업(74%), 지역별로는 Oromia주와 Addis Ababa시(78%)가 절대비중 차지

- 무역·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인해 교역량도 투자실적에 비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인프라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의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투자된 것으로 분석

에티오피아의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투자현황(1992년~2019년 9월)

(단위 : USD 천만, 건, 비중)

순위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국가명	금액	건수	분야	금액	건수	지역명	금액	건수
1	중국	95(20%)	774(25%)	제조업	350(76%)	1,520(49%)	Oromia	192(41%)	888(29%)
2	사우디	53(12%)	46(2%)	건설업	45(10%)	213(7%)	Addis Ababa	168(36%)	1,792(58%)
3	에-중 합작	44(10%)	109(4%)	농업	40(9%)	330(11%)	Amhara	46(10%)	104(3%)
4	터키	29(7%)	95(3%)	부동산업	19(4%)	647(21%)	SNNPR	23(5%)	96(3%)
5	영-네덜란드 합작	27(6%)	5(0.2%)	요식업	7(2%)	150(5%)	Multiregional	15(3%)	151(5%)
41	한국	2.1(0.5%)	42(1.4%)	기타	3(1%)	63(2%)	Tigray	10(2%)	44(1%)

자료 : 에티오피아 투자청(ETIC)

- 한국은 1996년 경남기업이 최초 진출한 이래 USD 2.1천만(42건)을 누적 기록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신티에스(의류), 영원무역(의류), 풍국산업(기방)의 투자진출이 눈에 띄는 실적
-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조 기반 부재로 현지에서의 원부자재 조달이 수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원부자재의 수입조차 원활하지 않아, 로컬 원부자재 업체의 발굴 혹은 원부자재 공급 업체와 동반진출도 고려 필요

한편 투자자금 대출지원(50~70%), 5년~10년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수출기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류비, △낮은 생산성, △중앙·지방당국간 이견, △외화 부족은 투자 저해 요인

라. 공적개발 지원현황

에티오피아 2018/2019 회기 기준으로는 총 USD 9.6억의 유·무상 차관을 집행함

2018/2019년 회기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자금 집행현황

(단위 : USD 백만)

순위	수여국/기관	무상	유상	기술지원	총합
1	DFID	277.96	0.00	76.72	354.69
2	USAID	279.85	0.00	0.00	279.85
3	Germany	18.49	0.00	39.43	57.91
4	JICA	4.02	35.61	5.94	45.57
5	Credit Suisse	-	29.59	-	29.59
6	Netherlands	29.51	0.00	0.00	29.51
7	Israel	-	28.86	-	28.86
8	CIDA Canada	24.15	0.00	0.00	24.15
9	France	0.70	23.35	0.00	24.05
10	IRISH AID	14.43	0.00	0.00	14.43
11	Finland	14.35	0.00	0.00	14.35
12	Korea/KOICA/EXIM Bank	3.79	8.63	0.00	12.42
13	Czech Republic	10.76	0.00	0.00	10.76
14	South Africa	-	7.20	-	7.20
15	Norway	6.70	0.00	0.00	6.70
16	SIDA Sweden	6.47	0.00	0.00	6.47
17	Italy	1.48	3.55	0.00	5.03
18	India	0.00	2.57	0.00	2.57
19	Kuwait	0.00	1.46	0.00	1.46
20	Spain	1.14	0.00	0.00	1.14
21	Austria	0.74	0.00	0.00	0.74
22	Saudi Fund	-	0.22	-	0.22
23	Denmark	0.07	0.00	0.00	0.07
24	Swetherland	0.04	0.00	0.00	0.04
-	합계	694.66	141.04	122.09	957.79

* 국제기구분 미포함

자료 : 에티오피아 재무부(MOF)

- 동기 무상차관 집행은 약 USD 7억으로 전체 대비 72.5%를 차지하였고, 유상은 USD 1.4억으로 14.7%, 기술원조는 USD 1.2억으로 12.7%를 차지
 - 유무상 차관 집행 실적 1위는 영국의 DFID(국제개발부)로서 USD 3.5억을 집행하여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미국의 USAID가 USD 2.8억을 집행하여 29%를 차지
 - 무상차관은 지속 감소 중인 반면 유상차관은 급증가 중으로 경제, 산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유상차관의 증가는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에 긍정적 요인
- 한편 유상차관 증가로 인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외 채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만기상환 도래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
 - 의회의 신규차관 통제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프라 구축 시까지 차관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아프리카 내 원조 금액 기준 1위 국으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 개발, 교통·에너지, 교육 등의 중점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며 개발 협력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음**

- 특히, 종래의 순수 ODA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나 KOTRA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및 산업형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도국 대상 역량 전수) 등 다양한 기업 참여형 ODA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 특성상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 매우 유효
 - 예로, KIAT는 산업 ODA로 한국 섬산연 등과 연계하여 Bole-Lemi II 산업단지 내 섬유테크 노파크 조성 사업 추진 중

2019년 부처별 에티오피아 지원계획

기관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예산 (억 원)	총사업 기간	유/무상
기획재정부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프로젝트	1,197	2016~2020	유상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프로젝트	1,378	2018~2023	유상
	솔루타-게브레 구라차 전력망 구축사업	프로젝트	844	2013~2019	유상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한 산학 연계 강화	개발컨설팅	3.20	2019~2020	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정책	개발컨설팅	4.42	2018~2019	무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	프로젝트	20.00	2017~2020	무상
	기관 간 협력지원	민관협력	1.50	2019~2021	무상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프로젝트	31.26	2017~2020	무상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	프로젝트	36.26	2016~2020	무상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프로젝트	16.84	2017~2020	무상
	낙농기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프로젝트	31.68	2018~2021	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프로젝트	84.00	2018~2022	무상
	섬유·가죽 분야 표준·적합성평가선진화 지원	개발컨설팅	7.00	2019~2023	무상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	프로젝트	76.73	2014~2019	무상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프로젝트	53.00	2015~2020	무상
농촌진흥청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2차 사업	개발컨설팅	30.00	2016~2020	무상
KOICA	오로미아주 라디오방송을 통한 초등교육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75.71	2013~2019	무상
	오로미아주 도로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185.42	2013~2020	무상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77.25	2015~2020	무상
	인구 생식보건 행동 변화 및 서비스 증진	프로젝트	135.60	2019~2023	무상
	통합보건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61.80	2015~2021	무상
	암하라주 새마을운동 사업	프로젝트	46.00	2017~2021	무상
	싱글원도우사업(2단계)	프로젝트	86.14	2017~2019	무상
	통합적 식수위생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113.00	2019~2023	무상
	티그라이주 직업훈련학교 건립사업	프로젝트	-	2013~2019	무상
지자체(강원)	한국전 참전군 후손 지원사업	장학지원	5.42	2009~현재	무상

자료 : ODA Korea

마. 프로젝트 동향

에티오피아의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송전망 구축 등이며 대부분의 자금조달은 유상차관에 의존

- 에티오피아 도로청(ERA-Ethiopian Road Authority)이 총괄하여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 내륙국가의 단점을 극복하고 연 11% 경제성장을 실현코자 노력



- 또한, 인근국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충을 통해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에 대비한 역내무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도로 건설 프로젝트 대다수는 WB와 AfDB의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며 한국은 EDCF로 모조-아와사(Modjo-Hawassa 2공구, 대우건설), 고레-테피(Gore-Tepi, 현대산업개발) 구간 도로 건설 추진
- WB와 AfDB 자금으로 추진되는 시공사업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한 수준이나 설계·감리의 경우 다수의 한국 엔지니어링사가 수주경쟁에 적극 참여 중

- 2018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총 USD 11억 규모의 3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현재 각 F/S 진행 중

구간명	통과지역	총연장	공사금액	공사기간
Awash - Mieso	Afar주, Oromia주, Somali주	71km	USD 2.3억	3~4년 예상
Adama - Awash	Afar주 3지역, Oromia주 East Shewa지역	133km	USD 4.4억	4~5년 예상
Mieso-Dire Dawa	Somali주, Dire Dawa시	138km	USD 4.6억	4~5년 예상

자료 :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

에티오피아 총 전력(약 4,300MW)의 90%는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화·산업화 촉진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해 PPP 방식을 통한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 추진 중

- 수관개에너지부(MoWIE - Min. of Water, Irrigation & Energy) 산하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Ethiopian Electric Power)가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총 35개 발전 프로젝트를 관리
- 이중 PPP 방식으로 총 USD 52.8억 규모의 14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 6개에 USD 36.2억, 태양광 발전소 8개에 USD 16.6억의 공사비 예상
- 수력발전소 6개 신규프로젝트 각 F/S 진행 중
- 2019년 초 2곳의 태양광 발전소(Gaad 및 Dechato 지역)는 사우디 업체가 낙찰, 나머지 6개 신규프로젝트는 현재 RFQ(Request for Qualification)단계에 있으며 2020년도 초 RFP(Request for Proposal) 진행 예정

신규 14개 PPP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구분	발전소 명	해당지역	발전량(MW)	전력량(GWh)	공사비(USD백만)	가동시기
수력	Genale VI	Somali주	246	1,542	588	2028년
	Dabus	Amhara주	798	3,433	740	2024년
	Halele + Werabessa	SNNPR주	436	2,029	886	2028년
	Chmoga Yeda I & II	Amhara주	280	1,102	540	2023년
	Genale V	Somali주	100	558	298	N/A
	Geba I & II	Oromia주	372	1,749	572	2025년
태양광	Mekele	Tigray주	150	263	180	2021년
	Humera	Tigray주	150	263	180	2021년
	Welenchiti	Oromia주	150	263	180	2021년
	Weranso	Afar주	150	263	180	2021년
	Metema	Amhara주	125	219	225	2021년
	Hurso	Somali주	125	219	350	2021년
	Gaad	Somali주	125	219	180	2021년
	Dechato	Afar주	125	219	180	2021년

자료 :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

- PPP 사업의 최대 이슈인 **발전차액(혹은 사용료)**은 WB가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는 전망
 - 일괄 적용 여부는 미정이나 민간기업의 리스크 감소를 통한 관심과 참여유도 목적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규모는 USD 1.5~2억(수출 USD 1억, 수입 USD 6천만 내외)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임에도 교역규모는 다소 제자리걸음

- △저가 중심의 시장 형성, △높은 물류비, △더딘 L/C 개설, △실질 구매력 부족 등 시장진출 저해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기 때문에 외화 배정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2016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외국인 투자 급락, 외환 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개혁 드라이브 중
 - 단, 외환 부족은 현재도 지속, 2019년 들어서도 새로운 외환 규제가 도입, 강화되고 있으므로, 외화 배정 우선 할당 품목 위주로 시장 개척 노력 경주 필요

2014~2019년 8월 한-에티오피아 교역 현황

(USD 백만, 증감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수 출	155(65%)	114(-27%)	97(-15%)	114(17%)	105(-8%)	66(5%)
수 입	55(120%)	55 (0%)	53 (-4%)	62(16%)	54(-12%)	36(10%)
수 지	100(45%)	59(-41%)	44(-25%)	52(23%)	51(-0.1%)	30(N/A)

* 2019년 8월 기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107대 수출대상국, 106대 수입대상국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주요 교역품목으로 한국은 화학제품·건설중장비 등 건설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커피·참깨·화초류 등 주로 농산품을 수입

- 제조 원료, 의약품에 대한 외화 우선 할당 등으로 인해 기타 석유화학 제품과 의약품이 2019년 들어 136% 이상 신장하는 가운데, 건설중장비는 외화 배정이 어려워지며 큰 폭으로 하락
 - 고가의 장비 수입에 대한 외환배정이 매우 인색하고 L/C 개설도 1년 이상 소요

2019년 8월 한-에티오피아 주요 수출입 품목(MTI 4단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USD천)	증감률	분야	금액(USD천)	증감률
1	기타석유화학제품	17,420	136.5%	커피류	32,536	10.1%
2	합성수지	10,586	-10.0%	화초류	1,090	113.6%
3	건설중장비	5,445	-52.2%	채유종실	1,083	-15.8%
4	의약품	4,272	138.5%	무선송수신기	390	0.0%
5	기타정밀화학원료	4,141	-10.9%	직물제의류	348	230.2%
	수출총계	65,611	4.9%	수입총계	36,011	10.1%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 에티오피아 커피는 총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가체프 등 프리미엄 커피 수출 증대로 인해 수입 증가 추세

나. 투자

 1996년 최초 투자 신고 이래 2019년 2분기까지 29개 법인, 246건, USD 4천만 이상 투자

- 에티오피아의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USD 11.5백만의 투자 신고 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9년 8월 아비 총리의 방한 이후 다시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

한국의 대(對)에티오피아 투자실적

(단위 : 건, 개사, USD백만)

구분	2096~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	누적합계
신고건수	22	78	49	18	50	29	246
신규법인 수	19	3	2	3	0	2	29
신고금액	5.8	14.3	13.3	11.2	7.5	9.1	61.2
투자금액	4.5(-)	6.9(+202%)	11.5(+67%)	5.7(-51%)	8.9(+156%)	2.7(-)	40.2

자료 : 수출입은행

- 특히 △동남아 인건비 상승 압박, △美 TPP 탈퇴, △AGOA, EBA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의류·신발·기방 등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로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지속 증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52%) > 건설업(29%) > 도소매업(14%) > 기타 (5%) 순이며, 투자 주체별로는 대기업(49%) > 중소기업(42%) > 개인(9%) 순

한국의 업종별, 주체별 대(對)에티오피아 투자실적

(단위 : USD백만, 비중)

업종별				주체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18.4(52%)	10.2(29%)	4.7(13%)	2.0(5%)	17.2(49%)	15.0(42%)	3.1(9%)

자료 : 수출입은행

- 제조업은 의류(신티에스, 영원무역, 세양물산), 가방(풍국산업), 철강(이코스) 기업들이 투자하였고 건설업은 주로 EDCF로 추진되는 도로,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이 투자
-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와 같이 대표 성공 사례가 부재하여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결정을 고심하는 반면 중국, 인도는 최근 더욱 과감한 투자행보를 지속
 - 글로벌 의류기업 PVH(美)는 공장 운영 및 로컬 원자재 기업 발굴·육성(원가절감)도 병행

투자 진출에 앞서 잦은 출장 및 현지 파트너, KOTRA를 통한 현지 실정 파악 필수

- 수출 제조업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물류비, △낮은 생산성, △관료주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 열악, △조세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등으로 초기 투자 계획 수립 시의 ROI(Return on Investment)와 실제 투자 집행 후의 ROI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의 필요

(실패 사례) 中 당나귀 육가공 수출업체 B사,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폐쇄

- 당나귀 육가공 수출업체인 중국의 B사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고 지방에 가공공장 설립 후 생산 실시
- 한편 당나귀는 지방 지역 주민들의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도살 및 당나귀 육 섭취는 현지 문화에 크게 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인 폐쇄를 명령
- 투자진출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등도 꼼꼼히 조사 필요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여 교통, 수자원, 에너지,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무상 차관공여를 통한 경제 협력 수요 증가

- 고레-테피(Gore-Tepi) 고속도로, 남부 송전망 건설, 지하수 활용 관개수로 개발,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참여 중
 - 다만 수원국의 사업 변경, 각종 규제나 현실적 제약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히 발생
- 최근 들어서는 사업당 USD 2~3천만 내외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토지·공간 정보시스템 등 우수성이 널리 입증된 한국형 공공관리시스템 지원 등으로 다양화 추세

- 또한, KSP 사업, 섬유테크노파크 건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등 각 부처의 자체 ODA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에티오피아 정부와 활발히 협력 중

아비 총리의 2019년 방한 시 양국 간 정상회담(8.26)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등 MOU 5건 체결

-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세 행정 현대화, 양국 간 표준 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다만 투자진출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사항인 투자보장협정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건립 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호 합의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

2020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사절단 파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경험 의제는 △급변하는 에티오피아의 대내·외 정세와 △그간 Abiy 정부의 일련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관심사에 기초하여 선제적인 발굴과 제안 필요

- (에리트레아) Massawa, Assab항을 에티오피아의 수출입 전용 창구로 활용하고 UN제재 해제 (2018년 11월)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지원 및 공동사업 개발 가능
 - 지부티(Djibouti) 의존적인 고비용 교역구조의 조속한 탈피를 위해 에리트레아의 Masswa, Assab항의 화물 처리능력 확대 및 접근도로·철도 등 기초 인프라 개선 유망
 - 또한, 국경지대 광물자원 공동개발, 에티오피아 남부-에리트레아 항구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 등 지하자원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관심 고조
- (PPP 프로젝트) 증가일로의 국가부채로 인해 인프라 구축을 차관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로 프로젝트 활성화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기여
 - 현재 14개 PPP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확정 중
 - 한편, 외환 부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용료, 발전차액 등)에 대한 외화 지급 여부가 가장 큰 이슈인바, 이에 대해서는 WB의 지급보증과 연계하는 방안 등 강구 필요
 - * PPP 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에티오피아 정부-WB-우리정부 간 협력 가능 방안 모색 필요
-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수입대체품목 개발 및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을 위해 경제성장의 다양한 모멘텀 확충 노력
 - 중국의 경우 중국기업 전용 '동방산업단지(EIZ)' 개발 후 확장공사까지 추진 중인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기업 전용 단지' 개발도 논의 중
 - * 일본은 Bole-Lemi II 공단부지 내 일본기업 전용구역에 배정받아 개발 예정

- 또한, 미숙한 공단개발·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의 FEZ 개발경험 전수도 필요 분야
- (농업 경쟁력)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커피 등 주력품목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개선 시급
 -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탈피, 종자개량 → 계획경작 → 유통 및 관리 시스템 → 농산물 저장센터 구축까지 유·무상 협력을 통한 통합 패키지 지원사업 검토 가능



Ⅲ. 진출전략

※ 요약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화 할당 우선 품목 위주로 시장 선점 시 캐시 카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장기 전략 시장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에티오피아 시장 SWOT 분석>

<p>S</p>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 인구 1억이 넘는 큰 내수 시장 •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전기, 수도) 	<p>W</p>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용 과다(내륙국가) • 불투명한 행정(세무, 관세) 시스템 • 전기, 물 등 기본 인프라 부족 • 낮은 구매력
<p>O</p>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인 대한 경제 협력 모드 • 제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인센티브 및 산업단지 조성 •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개방 정책 • AGOA, AfCFTA, EBA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 	<p>T</p> <p>위협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 부족에 따른 결제 대금 지연 • 정정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 저가품 및 위조품 범람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화학 원료 등 현지 유망품목 발굴 •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 시장 확대 기회 모색을 위한 현지 투자진출 	무주공산 시장선점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원조 연계형 사업 진출(EDCF, IBS 등) • 에티오피아와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CSR 사업 개발 추진 	개발협력사업 구상 및 추진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중인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활용한 현지진출 • 에티오피아 정부의 투자자금 대출 등 적극 활용 	전략적 교두보 구축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우선 할당품목 중점 공략 • 세무, 금융 당국과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 • 대사관, KOTRA의 기업지원협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애로 해소 노력 	규제와 맞서기보다 규제에 올라타기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2-1. PLC(Product Life Cycle)에 따른 품목 선정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 지난 제품도 현지에서는 신제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여지 다수
- 바이어 수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사와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유도

한국산 수입 경험 여부 및 일정 규모의 L/C 개설능력을 확인 후 거래관계 구축

- 바이어 능력에 따라 중국산과 한국산의 사용처를 구분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가능
-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혐오감 확산으로 생활용품은 중저가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2-2.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 가격 경쟁력 부재 시 한국기업전용 산업단지 투자 진출 고려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한국기업전용 산업단지 구축 참여 모색
- AGOA, EBA를 활용한 거대시장으로의 진출 거점 확보 및 향후 내수시장으로도 진출 모색

최근 중국, 인도의 산업단지 내 부지선점 가속화, 향후 부지 임차료 상승 우려

-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울 경우, 산업단지 내 소규모 투자로 테스트 선행
- 총 투자자금의 30%까지 현지화 대출 지원을 활용하여 초기 금융 조달 부담 경감

2-3. 주재국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주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향후 아국의 ODA 지원 확대로 다양한 공적자금 연계형 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국제입찰 프로젝트 시행여부를 주요한 능력으로 평가(EDCF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 축적)

ODA 연계형 시장 진출은 외화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부담 없이 시장 경험 축적 가능

- 건설 분야는 중국기업과 가격경쟁 부담, EDCF 사업 위주로 시공경험 축적 필요
- EDCF(수은), IBS(코이카), CSR(KOTRA), 산업형 KSP(KOTRA 등) 프로그램 활용

3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3-1. 중국, 인도에 비해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포지셔닝으로 독자적 브랜드 형성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꾸준한 수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화 규제로 인해 공급이 충분치 않고, 진출 잠재력은 충분
- 저가 중국 및 인도산 제품에 대한 혐오감 확산으로 한국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중국 대비 가격 높으나 美·유럽의 수준에 근접한 품질을 가장 큰 강점으로 활용

- ‘역샌드위치론’이 통하는 시장으로서 가격대비 타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 강조
- 원재료 및 화학제품은 외화할당 2순위에 해당되어 비교적 외화 할당 용이

3-2.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기회 확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결핵, 말라리아, HIV 진단키트를 위주로 국제원조 프로젝트 발주가 매년 증가 중
- 프로젝트 수주 경험 축적 시, 추가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시장 형성

WHO, PQ 등 국제인증 취득, 식약안정청 테스트 완료를 통해 수주 경쟁 참여 사전 준비

- 약 USD 10억 규모의 시장 형성, 공공 80%, 민간 20%의 비중으로 공공 비중이 압도적
- 식약안정청(FMHACA) 및 의약품조달원(PFSA)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 확대

3-3. 韓·日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AS 마켓 부품시장 공략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일본 중고차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부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한국과 일본 완성차 공급 경험을 축적, 현지 시장진출에 부합

열악한 도로 사정, 미흡한 정비기술로 인해 부품 교체수요는 지속 증가추세

- Shock Observer,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등 부품 전반에 걸쳐 시장진출 기회 확대
- 현대, 기아의 현지 조립생산 확대 시 동반 진출도 고려 가능

4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1. 에티오피아 정부의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 참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에리트레아 2개 항을 에티오피아의 교역 창구로 활용하고 UN 제재 해제 후 각종 경협사업 추진 예정

고비용 교역구조의 조속한 탈피와 지하자원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큰 관심

- Masswa, Assab 항의 화물 처리능력 확대 및 접근도로·철도 등 기초 인프라 개선 희망

4-2. PPP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유·무상 차관 및 MDB 연계방안 제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증가일로의 국가부채로 인해 인프라 구축 시 차관 의존적 형태에 한계 봉착,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유도 시급

현재 14개 PPP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확정 후 2019년~2020년 중 발주 예정

- 민간사업자 외화수익 지급에 대한 WB 등 국제금융기구 및 유·무상 차관 연계방안 강구

4-3. 한국기업 전용공단 등에 대한 동반 진출로 리스크 감소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공단을 통해 △외자유치 확대, △산업육성, △수출품목 다변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모멘텀 확충

동방산업단지(中)와 같이 ‘한국기업 전용 단지’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진출 도모

- 또한, 미숙한 공단개발·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의 FEZ 개발경험 전수도 필요 분야

4-4. 농축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에티오피아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확대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농축산업의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커피, 참깨 등 일부 주력품목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개선 시급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탈피, 유·무상 협력을 통한 통합 패키지 지원사업 검토 가능

- 종자개량 ⇨ 계획경작 ⇨ 유통·관리 시스템 ⇨ 농산물 저장센터 구축 등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5 진출 시 유의사항

외환부족 만성화로 인한 수입 L/C 개설 지연	현지은행 대금 결제 지연
<p>■ (현황)</p> <p>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이 지정한 우선 수입품목에 따라 수입 L/C 발급 위한 외환 할당에만 30만 불 기준으로 약 8개월~1년 정도 소요</p> <p>* 참고로 현재 외환 할당 우선순위 품목은 연료, 제약, 농업용 비료 등</p> <p>■ (대응전략)</p> <p>☞ 계약 체결 후 당초 수출까지 예상했던 기간보다 1.5배 이상으로 예상하고, L/C 개설 시 큰 금액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PI를 나누어 수출대금을 조금씩 회수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바이어가 해외 계좌를 소유한 디아스포라의 경우, 자금 유동성 제한이 다소 적으므로 바이어 발굴 시 확인 필요</p>	<p>■ (현황)</p> <p>대금 결제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현지 은행에서 중계은행(미국, 독일 등)으로 대금 결제 신청을 고의로 미루거나 전산망 송금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p> <p>■ (대응전략)</p> <p>☞ 국내업체는 해당 내용을 무역관에 문의하여 무역관-바이어-은행 간 진행 상황 파악 및 협조 요청이 가능함</p>
세수 확대 위한 관세 개혁 가속화	세무, 관세 등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
<p>■ (현황)</p> <p>19년도 11월부터 SKD 산업 투입재 관세가 5% → 10%로 증가 및 중고품 관세 특혜 폐지 등</p> <p>■ (대응전략)</p> <p>☞ 에티오피아 당국의 관세 조치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거래 혹은 접촉 중인 바이어를 통해 관세 개정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조사한 뒤 수출량, 선적시기 등에 대한 국내 업체의 선제 대응 필요</p>	<p>■ (현황)</p> <p>현지화 평가 절하에 따른 환차손 발생, VAT 환급 지연, 회계 장부 내 비용 처리 불인정 및 법인세 증가,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등</p> <p>■ (대응전략)</p> <p>☞ 투자 희망 기업은 현 조세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변경될 조세 제도에 대해 미리 대비가 필요함</p> <p>- 무역관은 대사관과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세무 당국과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위한 정기 협의 채널 개설 방안을 검토 중</p>
무역 사기 주의(1)	무역 사기 주의(2)
<p>■ (현황)</p> <p>공장 허위방문을 목적으로 바이어가 국내업체에 방한 초청장 요구함</p> <p>■ (대응전략)</p> <p>☞ 국내업체는 바이어가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p>	<p>■ (현황)</p> <p>무역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사업자등록증, 바이어 여권, 각종 선적 서류 등 은행 발행 서류 및 신분증을 위조하고, 물류회사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운송비 및 선적된 제품을 사취함</p> <p>■ (대응전략)</p>

- 하며 급하게 상담 진행을 요청할 경우 일단 의심 필요함
- 일면식이 없는 바이어가 대량주문, 선금 제안,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공장 방문 등을 제시한다면 무역 사기일 확률 높음
- ☞ 국내업체는 바이어와 협상이 진행될 때, 무역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거래나 초청장 발급 전에 무역관을 대상으로 바이어 신용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임
- 에티오피아 바이어 대부분은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국외기업 신용조사가 불가하며, 에티오피아 내 기업의 재정 건전성,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이 부재
- 최근 에티오피아인들의 난민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업체가 초청장 작성 시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 사기 바이어는 위조 선적서류 송부 직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무역 사기임을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주의가 필요함
- ☞ 국내업체는 무역관이 제공하는 바이어 미팅, 오피스 방문, 은행 서류 확인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지급 사실관계 확인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429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N/A	대한수입액('18/US\$백만)	27
건설용 중장비	시장동향	건설용 중장비는 100% 수입에 의존하며 인프라 구축과 건설 산업의 증가로 건설용 중장비의 수요가 높아짐		
	경쟁동향	중국, 한국, 일본 제품이 지배적. 한국과 일본 제품은 품질 면에서, 중국산 제품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지님		
	진출방안	뛰어난 품질에 대한 인식이 퍼져있으며, 외화 동원 능력이 뛰어난 바이어를 찾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HS Code	8703	수입관세율(%)	35
	수입액('18/US\$백만)	213	대한수입액('18/US\$백만)	4.1
개인 자동차	시장동향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가 매년 증가		
	경쟁동향	내구성과 A/S면에서 일본과 인도 제품이 지배적		
	진출방안	완성차는 관세율이 높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현지 조립 생산(CKD) 검토(일부 완성차 업체 기추진 중)		
품목명 3	HS Code	8704	수입관세율(%)	10-35
	수입액('18/US\$백만)	246	대한수입액('18/US\$백만)	2.2
화물 자동차	시장동향	물동량 증가에 따라 수요 증대		
	경쟁동향	가격 경쟁력과 A/S면에서 일본, 중국, 이탈리아 제품이 지배적		
	진출방안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필요. 또한 A/S를 위시한 기술 교육을 제공 필요		
품목명 4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445	대한수입액('18/US\$백만)	0.8
의약품	시장동향	품목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인도 제품은 가격 면에서, 미국과 벨기에 제품은 품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진출방안	공공 조달 시장 유망		
품목명 5	HS Code	7214	수입관세율(%)	20
	수입액('18/US\$백만)	205	대한수입액('18/US\$백만)	N/A
철강 제품	시장동향	인프라 구축과 건설 산업의 증가로 수요가 높아졌으나 현지에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함		
	경쟁동향	현지에서 일부 생산되며, 터키와 중국 제품이 지배적		
	진출방안	JV를 통한 현지 생산도 고려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에티오피아는 금융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혁 개방 추세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개방 예상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며 서비스업이 신장세에 있음

품목명 1	프로젝트 수(FDI/개)	150	자본(US\$백만)	70
호텔	서비스동향	동 서비스는 호텔, 모텔, 롯지, 식당 등의 서비스를 포함		
	진출방안	호텔 서비스에 관해 에티오피아의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 한국기업의 경우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고		
품목명 2	프로젝트 수(FDI/개)	74	자본(US\$백만)	9
투어	서비스동향	향후 에티오피아의 관광 산업은 정부 차원의 개발 노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개발된 관광 자원이 존재		
	진출방안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진출		
품목명 3	프로젝트 수(FDI/개)	62	자본(US\$백만)	14
교육	서비스동향	1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사립 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치원, 보육원; 초, 중등학교; 과학 기술 대학; 경영 대학; 약학 대학; ITC 기관; 직업 교육; 서비스 교육을 포함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음		
	진출방안	FID를 통해 에티오피아 내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과 협력하여 JV 형태로 교육·훈련 분야에 진출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무역	• 중기중앙회 무역 사절단	2020년 3월/아디스아바바
2	무역	• 화성시 아프리카 무역 사절단	2020년 7월/아디스아바바
3	투자진출	• 섬유테크노파크 투자진출지원사업	2020년 2분기/아디스아바바
4	개발협력	• CSR 사업	2020년 중/아디스아바바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 총선	2020.5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라는 이름과 달리 참가기업 수 및 전시회 구성은 매우 열악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섬유	섬유 및 직물	섬유산업 전시회 (ITME Africa)	2020.2.14 ~ 16/ 아디스아바바
건축	건축 기계, 장비 및 부자재, 광산 기계	건자재 전시회 (Buildexpo Ethiopia)	2020.2.24 ~ 26/ 아디스아바바
가구	가구, 인테리어 제품	가구, 인테리어 전시회 (FINTEX)	2020.3.5 ~ 6/ 아디스아바바
투자	비즈니스 서비스	범아프리카 무역투자 전시회 (Pan African Trade and Investment Expo)	2020.3.19 ~ 22/ 아디스아바바
플라스틱	플라스틱, 프린팅, 포장 제품	포장기기 전시회 (Plastic-Print-Pack Ethiopia)	2020.7.3 ~ 5/ 아디스아바바
식품	농업, 식품 가공, 식품포장	가공식품 전시회 (Agrofood Ethiopia)	2020.7.3 ~ 5/ 아디스아바바
호텔	접대, 서비스	호텔산업 전시회 (Hotel Show Africa)	2020.7.11 ~ 14/ 아디스아바바
무역	건설 기계, 에너지, 섬유, 전기, 자동차 부품 등	중국 무역통상 전시회 (China Trade Week)	2020.8.12 ~ 14/ 아디스아바바

부록

對에티오피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에티오피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에티오피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에티오피아의 잠재력

- 아프리카 제2의 인구 대국(2016년 1억명 초과)로서 대규모 잠재 시장을 보유하고 최근 10년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기록
 - *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現 성장세 지속 시 에티오피아가 2050년 아프리카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존의 EBA(Everyting But Arms : 대(對)유럽 무관세),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대미(對美) 무관세),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에 더하여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의 2019년 5월 30일 발효로 대외 경제 통합 가속화
- 2018년 4월 Abiy Ahmed 총리 취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평화 추구를 통해 안정적 발전 기반 구축 노력 중
 - * 에리트레아와 화해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2019년 10월)

 주요국의 대(對)에티오피아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의 대(對)에티오피아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의 최대 교역국으로서「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을 바탕으로 도로, 경전철 등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활발히 진출 중 * 현재 약 490여 개의 중국 업체 진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에티오피아-일본 간 우호통상 조약 체결 이후 꾸준한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ODA뿐만 아니라 안보·통상·투자 분야 협력 관계 심화 * 일본은 에티오피아 PKO 센터 건립에 재정지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對)에티오피아 정책은 소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안정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미국의 최대 원조 수혜국(2019년 4월 기준, 최근 5년간 총 지원 금액 40억 불)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대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주요 공여대상국 중의 하나 • 2016년 에티오피아와 유럽연합(EU)은 양측간 지역 평화와 안정, 무역 및 투자 증진, 이민과 강제 이주 분야 등에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Strategic Engagement' 협약을 체결 • 에티오피아는 EU의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로서 EU는 2014~2020년간 총 7억 4,5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을 약속(영국, 이탈리아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한-에티오피아, 6.25 참전 우방으로 우호 관계 지속 유지

- 에티오피아는 6.25 남침 전쟁 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1개 대대 병력, 총 6,037명(파병을 위한 훈련 또는 대기 중 병력 포함)을 파병하였으며, 그 후 양국은 1963년 수교를 거쳐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 유지
- 2011년 양국 정상 상호 방문 이후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면서 양국관계 격상
- 에티오피아는 우리를 자국의 경제개발모델로 삼고,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희망
- 아비 총리의 2019년 8월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등 MOU 5건 체결
- 중국, 미국, 중동 등 대비 우리의 경제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
 - 한국은 에티오피아 수출 수입 시장 모두 1% 수준에 불과하며 투자 누계액도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

2019년 6월 에티오피아의 상위 5대 교역대상국 2019년 6월 에티오피아의 상위 5대 교역품목

(단위 : USD 백만, 비중)

(단위 : USD 백만, 비중)

순위	수출국	금액	순위	수입국	금액	순위	수출품	금액	순위	수입품	금액
1	미국	170(13%)	1	중국	919(22%)	1	커피	417(32%)	1	석유	733(18%)
2	소말리아	123(9%)	2	쿠웨이트	641(16%)	2	참깨	242(19%)	2	화학비료	208(5%)
3	네덜란드	103(7%)	3	인도	263(6%)	3	냉동채소	142(11%)	3	의약품	163(4%)
4	사우디	92(7%)	4	모로코	213(5%)	4	건채소	115(9%)	4	비료	154(3%)
5	아랍	81(6%)	5	미국	199(4%)	5	화훼류	105(8%)	5	밀	136(3%)
17	한국	25(1%)	24	한국	29(1%)						

자료 : Ministry of Revenue

자료 : Ministry of Revenue)

에티오피아의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투자 현황(1992~2019년 9월)

(단위 : USD천만, 건, 비중)

순위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국가명	금액	건수	분야	금액	건수	지역명	금액	건수
1	중국	95(20%)	774(25%)	제조업	350(76%)	1,520(49%)	Oromia	192(41%)	888(29%)
2	사우디	53(12%)	46(2%)	건설업	45(10%)	213(7%)	Addis Ababa	168(36%)	1,792(58%)
3	에-중 합작	44(10%)	109(4%)	농업	40(9%)	330(11%)	Amhara	46(10%)	104(3%)
4	터키	29(7%)	95(3%)	부동산업	19(4%)	647(21%)	SNNPR	23(5%)	96(3%)
5	영-네덜란드 합작	27(6%)	5(0.2%)	요식업	7(2%)	150(5%)	Multiregional	15(3%)	151(5%)
41	한국	2.1(0.5%)	42(1.4%)	기타	3(1%)	63(2%)	Tigray	10(2%)	44(1%)

자료 : 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

나. 한-에 상생협력 미래비전

에티오피아의 협력 수요와 우리의 비교 우위 및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필요

- 최빈국이자 피식민지 국가에서 탈피하여 단기간에 경제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에 적합한 차별화된 발전 모델 제시

에티오피아의 협력 수요 산업^주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가죽 및 가죽제품	섬유 및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 유치,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등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분야, PPP ◆ 장기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 제조역량 공유(투자유치-수출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대체, 수출 통한 외화 획득
화훼	농업	
건설업	제조업	
의약품	관광업	
에너지	식품가공업	

주 : 에티오피아 정부 사이트(<http://www.investethiopia.gov.et/> 등)에서 확인 가능

에티오피아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주		구체적인 역량
섬유 및 의류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한류 등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 (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 높은 전문인력 /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제조업	의약품	
에너지	식품가공업	

주 : 양국 정부 정책, 한국무역역량과 에티오피아 시장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도출

미래비전 :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 역량 전수를 통해 2025년까지 에티오피아의 중저소득국 진입 달성 지원과 10대 교역 국가 지위 획득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 대상 중소득국가로의 경제성장 및 전환(13/14), GTPII GTP 2 계획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개발(14/15), 제 2차 성장과 전환계획의 효율적 추진방안(15/16) 등에 대한 KSP 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

-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GTPII :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2016~2020)에 따라 세계 최빈국에서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위한 4대 목표 및 9대 전략을 설정

* 중저소득국 :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USD 1,005~3,955 내외의 국가(WB)

최종목표	4대 목표	9대 추진전략
2025년 중저소득국 진입	① 연 경제성장률 11% 유지 ② 농축산업, 제조 분야 기술, 품질 향상 ③ 전 국민의 GTPII 동참노력 강화 ④ 민주적 개발도상국 위상 강화	① 기존의 성장, 개발추세 유지 ⑥ 인적 자원 양성 교육, 보건 향상 ②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기반마련 ⑦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동참 유도 ③ 중소기업, 제조업 육성 강화 ⑧ 여성, 청소년 사회적 권리 강화 ④ 국내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⑨ 지속가능 개발 추구, 환경보호 강화 ⑤ 도시개발 가속화

- 특히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세관 및 물류 시스템 개선, △투자자금 대출(50~70%), △산업 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
- 6.25 참전까지 한 전통 우방 국가에 대한 보답 차원의 현재의 단순 원조 위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 필요
 - 무역, 투자진출, 개발협력 등 **다목적 전략국**이자 미개척 잠재시장인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 활용
- 2018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3대 교역 국가는 중국(USD 47억), 사우디(USD 15억), 인도(USD 13억)이며, 우리나라는 USD 2.2억으로 18위를 기록
 - 에티오피아의 10대 교역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교역액 USD 5억 이상** 필요

에티오피아의 2018년 10대 교역 국가

(단위 : USD백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국	프랑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교역액	4,674	1,528	1,318	708	646	561	517	514	505	503

자료 : Ministry of Revenue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전통 우방 국가를 넘어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①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최근 양국 정상 회담(2019년 8월 26일)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한 에티오피아의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함
- (기업 수요) 투자진출기업(한국기업연합회)의 주요 관심 사항
- (협력 방안)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 추진
 - 차기 양국 간 정상 회담 시까지 합의 통해 투자진출 기업 지원 필요

② 정책 금융 지원 확대

- (정책 수요) 무역보험공사는 2016년 에티오피아상업은행(CBE; Commercial Bank of Ethiopia)와 1억 불 규모의 무역금융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출입은행은 에티오피아를 EDCF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5억 불 지원 예정
 - * 한국제품을 구매하는 에티오피아 수입자에 대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불의 전대금융 신용한도를 설정
- (기업 수요) 에티오피아는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LC 개설 등 원활한 대외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건설 분야에서는 EDCF 외의 프로젝트 공사 수주는 쉽지 않은 상황
- (협력 방안) 추가적인 전대금융 및 EDCF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

③ KSP/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정책 수요) 에티오피아는 주로 한국의 경제 개발 역량 전수를 위한 공공 분야의 정책 자문 사업에 대한 KSP 수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국가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아프리카 내 원조 금액 기준 1위 국으로서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지역 개발, 교통·에너지, 교육 등의 중점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특히 종래의 순수 ODA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나 KOTRA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및 산업형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도국 대상 역량 전수) 등 다양한 기업 참여형 ODA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 특성상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 매우 유효
- (향후 제안)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요 아젠다별 KSP/ODA 실행

- ▶ **산업단지 협력, 산학연계 제조업 역량 확대** → ① 에티오피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 기업 기술이전과, ②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을 함께 돕는 win-win 형태 협력 가능
- ▶ **기업 애로 해소 노력** → 낙후된 조세, 관세 행정 분야 개선책 정책 자문

4 산업 표준 협력

- **(정책 수요)** 최근 양국 간 정상회담(2019.8.26.)에서 한국국가기술표준원과 에티오피아표준원간 표준화, 인증, 적합성 평가, 기술규제 관련 협력 MOU 체결
- **(한국 역량)** KOTRA - 브라질 인증기관 INMETRO - KTR공동으로 양국 인증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및 운영 사례 경험 및 노하우 보유
- **(협력 방안)** 에티오피아표준원에 대한 산업 ODA나 KSP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한국의 표준 상호 인증 노력
 - * 전문가 인적교류, 인증 애로사항 등 정보교류, 인증안내자료 제작, 인증취득 지원 등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1 섬유 의류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섬유 산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에티오피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2016년에 한국형섬유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KIAT-에티오피아섬유산업개발원 간 MOU 체결
- **(시장 수요)** 기존 진출 기업(BM Garment, 신티에스, 영원무역) 외에도 신규 진출 검토 섬유 기업 10개사 내외
 - 섬유 산업은 일부 고부가가치제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사양 산업이나 에티오피아로의 투자 진출을 통해 현지 시장 개척, 대미(對美)(AGOA), 대(對)유럽(EBA) 수출용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
 -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 미국이 일부 사하라이남국가에 일종의 특혜관세 및 쿼터 폐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에티오피아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특혜 연장
 - * Everything But Arms : EU가 후진국(UN 지정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수출품 중 무기류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및 쿼터 없는 수출을 허용. 별도 지정 유효기간은 없음
- **(현지 역량)** Tommy Hilfiger, Calvin Klein, Speedo, IZOD, Van Heusen, Arrow, Warner's and Olga 등의 브랜드가 이미 Hawassa Industrial Park에 진출하였고, H&M, Tesco, Walmart 등이 에티오피아에서 의류 조달 중
- **(협력 체계)** 우리나라는 Bole-Lemi II Industrial Park에 한국형 섬유테크노파크 건립 중으로 2019년 11월, 2020년 투자진출 조사단 파견 시 KIAT 및 섬유산업연합회 등과 협업하여 투자진출기업 대상 투자 상담, 투자 기업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투자 애로 해소 노력 등 전개 필요

②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국 내 CKD 생산 활동에 대해 관세 감면이나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려하고 있음
- (시장 수요)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신차는 연간 2,000~3,000대, 중고차는 연간 7,000~10,000대 수준의 수요로 추정됨. 참고로 연간 차량 수입은 200~300대에 불과한바, 이는 주로 외환 부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분석됨
 - 중고차에 대한 수입세 30% 관세감면 폐지 등 노후화된 외국 중고차 수입 규제정책 시행 중이며 완성차에 대한 관세(각종 세금 포함)가 1,500cc 초과 1,800cc 이하 자동차가 123%, 1,800cc 초과는 163% 정도로 높아 수요 대비 공급이 언제나 부족한 편임
 - 특히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 AS 부품 수입이 필요한 A/S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임
- (현지 역량) 현대, 기아, 중국, 이탈리아 등 총 8개의 승용차 및 상용차 조립 공장이 운영 중임. 현대자동차 파트너인 Marathon Motor는 자동차 조립 공장 및 자동차 엔지니어 훈련 센터 4곳을 운영 중이며, 기아자동차도 Belayab Motors를 통해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모두 현지 조립 생산을 확대할 계획
- (협력 체계) 현재의 완성차 업체 중심의 소량 SKD(Semi-Knock Down) 방식에서 부품공급 협력 업체의 진출을 동반한 대량 CKD(Complete-Knock Down) 방식 및 서비스 센터 운영 등으로의 협력 확대 지원 필요(KOTRA는 투자 진출 시의 애로 해소, 부품공급 업체의 인근국 바이어 발굴 등 지원)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① 협력 수요

- (정책 수요) 에티오피아는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매우 부족한 상태로, 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송전망 구축 등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부분 유상 차관에 의존하여 추진
 - 대외 채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로 PPP 등 민간 자본 참여 프로젝트 확대 중
- (기업 수요)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WB, AfDB 재원의 설계·감리 사업 위주로 수주 경쟁에 참여
 - * 국제 입찰형 시공 사업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상 사실상 수주가 어려운 수준
 - 고레-테피(Gore-Tepi) 고속도로, 남부 송전망 건설, 지하수 활용 관개수로 개발,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참여 중

- (시장 현황) 증가 일로의 국가부채로 인해 인프라 구축을 차관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 제고를 위하여 현재 14개 PPP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마련 중
 -(도로) 2018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총 USD 11억 규모의 3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현재 각 F/S 진행 중

구간명	통과지역	총연장	공사금액	공사기간
Awash-Mieso	Afar주, Oromia주, Somali주	71km	USD 2.3억	3~4년 예상
Adama-Awash	Afar주 3지역, Oromia주 East Shewa지역	133km	USD 4.4억	4~5년 예상
Mieso-Dire Dawa	Somali주, Dlire Dawa시	138km	USD 4.6억	4~5년 예상

-(전력) 에티오피아 총 전력(약 4,300MW)의 90%는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화·산업화 촉진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해 PPP 방식을 통한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이 중 PPP 방식으로 총 USD 52.8억 규모의 14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 6개에 USD 36.2억, 태양광 발전소 8개에 USD 16.6억의 공사비 예상. 수력발전소 6개 신규프로젝트 각 F/S 진행 중이고, 2019년 초 2곳의 태양광 발전소(Gaad 및 Dechato 지역)는 사우디 업체가 낙찰, 나머지 6개 신규프로젝트는 현재 RFQ(Request for Qualification)단계에 있으며 2020년도 초 RFP(Request for Proposal) 진행 예정

신규 14개 PPP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

구분	발전소 명	해당지역	발전량(MW)	전력량(GWh)	공사비(USD백만)	가동시기
수력	Genale VI	Somali주	246	1,542	588	2028년
	Dabus	Amhara주	798	3,433	740	2024년
	Halele + Werabessa	SNNPR주	436	2,029	886	2028년
	Chmoga Yeda I & II	Amhara주	280	1,102	540	2023년
	Genale V	Somali주	100	558	298	N/A
	Geba I & II	Oromia주	372	1,749	572	2025년
태양광	Mekele	Tigray주	150	263	180	2021년
	Humera	Tigray주	150	263	180	2021년
	Welenchiti	Oromia주	150	263	180	2021년
	Weranso	Afar주	150	263	180	2021년
	Metema	Amhara주	125	219	225	2021년
	Hurso	Somali주	125	219	350	2021년
	Gaad	Somali주	125	219	180	2021년
	Dechato	Afar주	125	219	180	2021년

자료 :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

2 협력 방안

- EDCF 등 유무상 차관 공여 확대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다양한 **중소형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참여 확대**
 - 최근 들어서는 사업당 USD 2~3천만 내외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토지·공간 정보시스템** 등 우수성이 널리 입증된 한국형 공공관리시스템 지원 등으로 프로젝트 다양화 추세
 - 지부티(Djibouti) 의존적인 고비용 교역구조의 조속한 탈피를 위해 에리트레아의 Masswa, Assab항의 화물 처리능력 확대 및 접근도로·철도 등 기초 인프라 개선도 유망하며, 국경지대 광물자원 공동개발, 에티오피아 남부-에리트레아 항구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 등 지하자원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대외 인프라 구축사업도 유망

Ⅲ. 향후 對에티오피아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에티오피아 장관급 공동위원회 정례화

- 2019년 8월 2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장관급 공동위원회(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개최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합의 → 향후 정례화
 - * 2012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1차 한-에티오피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한국 측 수석대표 산업자원협력실장)한 이래 정례화되지 못하여 재활성화 필요
- Sub 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리플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② 단기적으로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을 KBP(Korea Business Plaza) 화(化) 하여 상시협업 체제 가동

- 단기적으로는 아디스아바바무역관을 K패키지 B2B 과제의 사무국화 하여 아젠다 발굴과 실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원루프 Shared Service Center 구축하여 비즈니스 지원 역량 결집
 - * B2B 과제는 무역관을 통해 발굴, 실시간 이행(G2G 과제, 대사관 전담)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범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범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쏠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에티오피아 정상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조은범	관장	아디스아바바무역관 본사 경제협력총괄팀	+251-113-204-305	freeman@kotra.or.kr

KOTRA자료 20-109

2020 국별 진출전략 **에티오피아**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55-2(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